

해설자용

미사 없는 공동체 전례 기도와 묵상 (다해, 8월)

천주교 마산교구

연중 제18주일

입당 해설

해설자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원하든, 그렇지 않은 대체로 재산의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확보하려고 재산을 쌓아 두는 행위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또 재산을 썩지 않게 쌓아 두려면 주님께 쌓아 두어야 할 것을 명심하면서, 예절을 봉헌합시다.

시작 성가 : 장

본기도

✠ 주 하느님, 저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보이시니, 주님을 창조주와 인도자로 모시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주님께서 만드신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지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코헬렛 1, 2 ; 2, 21-23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1.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2.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3.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4.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 독서 : 콜로새서 3, 1-5. 9-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2, 13-21

오늘의 묵상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백 개를 모으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데 딱 구십 아홉 개만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 개나 스무 개를 가진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지만 구십 아홉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하나만 더 모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도저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에 터무니없는 생각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고 부추길 따름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져든 사람은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관심은 온통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에 집중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단지 남은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되겠다는 집념뿐입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스며들 공간마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십 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적어도 만족이라는 단어만큼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관심은 온통 자신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눈 돌릴 틈이 없어진 것은 부자를 부추긴 탐욕의 결과입니다.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만족이 마음을 꺾는 탐욕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봉헌 성가 : 장

마침 기도

†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느님, 당신의 말씀으로 부족한 저희의 신앙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시어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저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저희 자신을 살리는데 급급해 왔습니다. 참 신앙의 길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불행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마침 성가 : 장

연중 제19주일

입당 해설

해 설 자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하느님 나라를 기꺼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고 이웃과 나누며,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준비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이 구별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삶을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 것을 결심하면서 이 예절을 정성스럽게 봉헌합니다.

시작 성가 : 장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속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고,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지혜서 18, 6-9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2.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3.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독서 : 히브리서 11, 1-2. 8-19<또는 11, 1-2. 8-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2, 32-48 <또는 12, 35-40>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닥칠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내일을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하며, 멀리는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느님은 늘 그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하느님, 조금만 더 있다가...’, ‘하느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늘 다음에, 시간나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의 잡다한 준비만이 아니라, 불시에 마주하게 될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늘 헤아리며 하루, 하루를 신앙 안에서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고, 늘 깨어 지내시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성가 : 장

마침 기도

† 저희에게 언제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전례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희의 신앙을 당신의 말씀으로 보다 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신앙을 가진 노아도 그 믿음 때문에 홍수의 벌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큰 믿음 때문에 만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당신의 큰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모 승천 대축일 - 8월 15일 -

입당 해설

해 설 자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이며,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 나라로 불림을 받아 오르신 것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청하면서, 예절을 봉헌합니다.

시작 성가 : 장

본 기 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육신을 그 영혼과 함께 천상 영광에 불러들이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요한 묵시록 11, 19ㄴ ; 12, 1-6ㄴ. 10ㄴ나

화 답 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1. 당신의 사랑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2.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3.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4.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 20-27ㄴ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 39-56

오늘의 묵상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혼과 함께 육신까지도 하늘로 불리어 올라간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처럼 성모님께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녀의 생애가 우리들이 하느님께 드려야 할 삶의 가장 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슬픔과 아픔을 행복으로 바꿀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여인이여” 라고 인사하며, 엘리사벳이 “여인들 중에 복되시며” 라고 찬미 인사드리지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녀의 삶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걸어간 삶은 가난한 시골출신의 처녀로서 미혼모의 신분과 가난한 목수의 아내를 거쳐서, 결국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울어야만 했던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시밭길 같은 삶 안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줄 알던 여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불행하게 보이는 삶 속에 머물렀지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행복으로 바꿀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녀가 부른 노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찬미하고 있으며, 또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며 그녀의 삶을 본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복됨과 불행의 차이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성가 : 장

마침 기도

† 우리의 어머니를 승천케 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도 세속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언제나 하늘 나라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저희 주변에는 주님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로 인해 저희들은 늘 근심 속에 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마침 성가 : 장

연중 제21주일

입당 해설

해설자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원의 문이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절을 봉헌합시다.

시작 성가 : 장

본기도

✠ 주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니, 저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 66, 18-21

화답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1.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2.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 2 독서 : 히브리서 12, 5-7. 11-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3, 22-30

봉헌 성가 : 장

오늘의 묵상

식당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걸은 번지르르하고 화려한데 맛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밖에서 보면 초라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데 맛이 기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식당은 인테리어나 예쁜 그릇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입니다. 세상이 겉멋에 집착하다 보니 겉이 번지르르하면 맛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의 길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물을 모아야 하고, 모은 재물 혼자 다 써야 하는 욕심 많은 세상의 눈에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초라한 문입니다. 예수님 표 식당은 욕심 많은 이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좁은문” 식당입니다. 그 집 음식 맛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좁은문 식당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입니다. 저도 그 맛에 빠지고 싶습니다. 몸에 밴 조미료 맛을 열심히 지워가야겠습니다.

마침 기도

✠ 오늘도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온갖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비오니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총, 특히 성령의 더욱 밝고 큰 빛 속에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마침 성가 장

연중 제22주일

입당 해설

해설자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이 지도자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 욕심과 명예욕, 야심과 교만을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라고 하시면서,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전례를 봉헌합니다.

시작 성가 : 장

본기도

✠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활기찬 믿음을 주시어, 저희 안에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주님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집회서 3,17-18.20.28-29

화답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1.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2.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3.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제 2 독서 : 히브리서 12, 18-19. 22-24ㄴ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4, 1. 7-14

오늘의 묵상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에는 극복할 수 없는 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알리려고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명인사나 연예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낮추고 속이면 아예 잊혀질까 봐 사소한 스캔들까지 동원해가며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흐름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의미가 있거나 할까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거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능 때문입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 바로 이 연어의 본능이야말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설령 예수님의 말씀이 시대의 흐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하여도, 오히려 그 말씀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 하여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연어의 본능처럼 살아야 하는 일이 바로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를 따를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봉헌 성가 : 장

마침 기도

† 지금 시간까지 저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당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
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신 성경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 아들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으며 살아가고자 하오
니 저희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소
서.

◎ 아멘.

마침 성가 : 장

복음화를 위한 기도

-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 아멘.